

폴 드 만의 비평: 수사적 읽기와 텍스트의 타자성*

원 철**

〈차 례〉

1. 서론
2. 언어의 비유성
3. 알레고리와 저자의 의도
4. 수사적 읽기와 텍스트의 타자성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폴 드 만(Paul de Man)의 비평에서 언어의 비유성이 문학 텍스트의 ‘수사적 읽기’(rhetorical reading)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그 결과 도출되는 텍스트의 타자성과 그로 인해 제기되는 문학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52789)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비유성과 더불어, 드 만이 텍스트를 탈구축(deconstruction)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은 알레고리(allegory)이다. 그에게 있어서 알레고리는 이야기의 표면에 나타난 것과는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문학 양식이라는 일반적 정의 이외에, 언어가 언제나 자신과는 다른 것—보다 정확히는 다른 말—을 지시할 수밖에 없음을 가리킨다. 알레고리란 언어의 비유성이 텍스트 차원으로 확장되어, 그 속에서 저자의 의도라고 여겨지는 것을 확인하고 결정하기가 불가능한 사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독해불가능성(unreadability) 속에서 ‘읽기’는 어떤 외부의 해석적 권위에도 의존할 수 없고, 텍스트는 지배적 의미체계를 벗어나는 ‘타자’로서 계속해서 탈구축되는 과정 속에 있게 된다. 독해불가능성은 지배적 의미 구조가 제시될 때 그 이면의 권력 관계를 탈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수사적 읽기가 초래하는 곤란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읽기의 주체에게 요구되는 일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문학 언어와 텍스트의 타자성에 직면하는 것은 어떤 의미체계에도 배치되지 않고 타자에게 응답할 ‘책임’을 요구한다.

주제어: 언어의 비유성, 탈구축, 수사적 읽기, 알레고리, 타자성, 독해불가능성, 저자의 의도, 책임

1. 서론

폴 드 만(Paul de Man)은 제프리 하트만(Geoffrey Hartman), J. 힐리스 밀러(J. Hillis Miller), 해롤드 블룸(Harold Bloom)과 함께 ‘예일학파’(Yale School)로 불리며, 그들의 비평적 전략은 ‘탈구축’(deconstruction)으로 알려져 있다. 탈구축은 일반적으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철학 이론을 가리키지만, 이 말이 문학 비평

에 사용되는 것은 이 유파를 대표하는 드 만의 ‘수사적 읽기’(rhetorical reading)가 가지는 특성 때문이다. 그의 논고인 「기호학과 수사」(“Semiology and Rhetoric”)에서 예시되듯이, 텍스트나 언어적 구조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자의적(literal) 의미와 비유적(figural) 의미를 동시에 드러낸다. 수사적 읽기는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 어떤 쪽으로도 확정될 수 없는 ‘결정불가능성’(undecidability) 혹은 ‘독해불가능성’(unreadability)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평적 방법은 데리다의 탈구축을 문학에 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데리다는 서양의 앎의 체계가 ‘현전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presence)에 기초해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철학이나 사상 텍스트들을 정밀하게 독해한다. 이 독해에서 도출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현전을 성립시키는 이항대립에서 하나의 항을 특권적으로 현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의 결정불가능성이다. 드 만의 수사적 읽기 또한 텍스트에서 특권적 혹은 지배적 의미를 찾아내기가 불가능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탈구축은 그의 비평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이 된다.

탈구축비평은 데리다의 이론이 미국에서 수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미국의 문학 비평을 주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탈구축은 의미의 결정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사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드 만이 사망한지 4년 후에 일어난 ‘드 만 사건’(de Man affair)은 이 반대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드 만이 2차 대전 당시 벨기에(Belgium)에서 나치(Nazis)의 검열을 받던 신문 『르 소와르』(Le Soir)에 장기간 기고한 사실이 1987년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보도되면서 그의 과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다. 여러 기사 중에서도 비난이 집중된 것은 1941년에 발표된 「현대 문

학과 유대인」(“The Jews in Contemporary Literature”)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기사는 비록 문학을 주제로 하는 것이었지만, 반유대주의(anti-Semitism)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드 만에 반대하는 비평가들과 언론은 기사 자체는 도외시한 채 선동적인 발언을 통한 공격을 이어갔다.¹⁾ 데리다의 이론도 이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후 일련의 논쟁을 거치면서 드 만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한다.

탈구축을 둘러싸고 전개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로돌프 가세(Rodolphe Gasché)는 드 만의 이론을 일체의 외부적 배경과 분리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시도한다. 가세는 드 만의 비평 이론의 핵심을 ‘읽기의 알레고리’(allegories of reading)라고 주장하며 그 ‘특이성’(idiosyncrasy)을 강조한다. 『읽기의 와일드 카드』(*The Wild Card of Reading*)에서 가세는 ‘수사적 읽기’를 드 만의 비평의 기본 특성으로 제시하면서도 이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수사적 읽기는 먼저, 리얼리즘, 형식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각각의 해석적 입장이 자신의 기준을 전체화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판의 방법으로서의 수사적 읽기는 그 자체가 오히려 전체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는 것에 대한 반성을 거치게 된다. 그 결과 마지막 단계에서 이 읽기는 자신의 일관성마저도 거부하며, 탈구축을 무한히 지속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 사태가 바로 드 만이 말하는 읽기의 알레고리이다.²⁾

드 만의 비평에서 ‘알레고리’는 텍스트를 읽는 핵심적 과정임과 동시에, 더 근본적으로는 ‘언어’의 특성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의 용어법에서 이 말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의 ‘비유성’

1) McQuillan, Martin. *Paul de Man*. New York: Routledge, 2001. p. 98.

2) Gasché, Rodolphe. *The Wild Card of Reading: On Paul de Man*. Cambridge: Harvard UP, 1998.

(figuralty)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알레고리는 언제나 ‘다른 것’에 대하여 말하는 언어의 작용을 가리킨다. 드 만은 “알레고리란 문학 텍스트가 현상적, 세계 지향적 방향에서 문법적, 언어 지향적 방향으로 움직일 때의 수사적 과정을 말한다”³⁾고 정의한다. ‘세계 지향적 방향’은 일반적으로 언어에서 대상 지시성, 즉 기호와 의미의 일치를 상징하는 자의적(the literal) 의미와 관련된다. 반면, ‘언어 지향적 방향’은 텍스트가 기표들 간의 ‘차연’(différance)적 움직임 속에서 자의적 의미를 무효화시키는 비유성을 가리킨다. 비유성이란 언어가 그 자체에 내재한 성질로 인해 의도된 지시대상을 가리키지 못하는 사태, 다시 말해서 ‘말해진 것’과 ‘의미되는 것’의 차이를 통해 기능하는 표현 장치이다. 이에 기초한 텍스트에서는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도, 해석적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알레고리는 읽기가 그러한 원리 혹은 기준들에 의한 동일화의 의미 체계를 언제나 벗어나는 ‘타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됨을 보여준다. 자의적 의미/비유적 의미 중 어느 하나를 확정할 수 없는 독해불가능성을 텍스트라는 타자의 ‘타자성’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언어의 이와 같은 성질 때문이다.

수사적 읽기가 의미의 결정불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텍스트를 탈구축하는 것이라면, 이 과정은 비유성에 주목하는 드 만의 독특한 언어관에서 그 동력을 얻고 있다. 가세가 정리한, 어떠한 해석적 입장의 전체화도 거부하는 알레고리 또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바바라 존슨(Barbara Johnson)이 지적하듯이, 탈구축적 읽기는 텍스트에서 하나의 의미작용이 다른 의미작용에 대해 절대적 지배권을 가진다는 주장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탈

3) de Man, Paul. *The Resistance to Theory*.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6. p. 68.

구축은 외부의 해석적 권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자체 내에 있는 ‘비평적 차이’(critical difference)를 주의 깊게 따라가는 것이다.⁴⁾ 지배적 의미를 추구하는 의미체계로의 회수가 아니라 ‘차이’를 발견하는 읽기는 텍스트에서 ‘타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드 만의 비평은 자의적 의미/비유적 의미의 위계 질서의 역전보다 더 근원적인 읽기로 향한다. 탈구축은 읽을 수 없는 지배적 의미나 의미작용으로부터 차이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드 만이 제시하거나 거론하는 비평 용어와 개념, 그리고 텍스트 독해가 저자의 권위를 의문에 붙이고 미학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것과 가지는 관련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수사적 읽기의 가능성이 함의하는 텍스트의 타자성과, 그로 인해 제기되는 문학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2. 언어의 비유성

1) 루소의 탈구축과 은유

탈구축 이론에서 무엇보다도 우선 문제시하는 것은 언어의 ‘기원’을 찾는 사고이다. 데리다와 드 만은 각각 철학과 문학에서 언어에 있어서의 형이상학적 전제를 분석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언어 기원론이다. 루소는 인간이 말을 하게 되는 최초의 동기가 사물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느낀 ‘정념’(passion)이며, 따라서 최초의 언어는 ‘비유적’

4) Johnson, Barbara. *The Critical Difference: Essays in the Contemporary Rhetoric of Reading*.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80. p. 5.

이라고 주장했다. 본래의(고유의) 의미는 나중에 그 사물을 제대로 관찰했을 때 그것에 붙여지는 진짜 이름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예시로서 다음의 에피소드를 제시한다.

어떤 원시인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경험한 것은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그는 무서운 나머지 그 사람을 자신보다 더 크고 강하다고 느끼고 그 사람을 *거인*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후 그 사람을 여러 번 보게 되면 그는 거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보다 더 크지도 강하지도 않으며, 그 사람의 키도 평소에 생각하던 거인이라는 말에 걸맞을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원시인]는 다른 이름, 예를 들어 *사람*이라는 말을 생각해내어 자신에게와 마찬가지로 그 타인에 대해서도 사용하게 된다. 거인이라는 말은 자신이 속았을 때 그런 인상을 준, 잘못 본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남게 된다.⁵⁾

이 언어관에 대한 데리다의 탈구축은 언어가 언제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vouloir-dire)과는 다른 것을 말하게 된다는 통찰에 기초해 있다. 루소는 비유적 언어가 먼저 생기고 본래의 의미는 나중에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루소가 의거하고 직접 정의하는 수사학 이론에 의하면 비유(*figure*)란 자의적(고유의) 의미를 전이(*transference*)시킨 것이다⁶⁾. 그렇다면, 자의적 의미가 존재하기도 전에 비유적 의미가 먼저 있게 되는 사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비유가 그 정의상 무언가를 ‘전의’(*trope*)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무언가, 즉 고유의 의미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는가? 데리다는 “외견상으로는 최초의 언어가 비유적이었다고 단언하면서도, 루소는 실제로는 그 *기원*으로서 자의적인[고유한] 것을 주장하

5) de Man, Paul. *Allegories of Reading: Figural Language in Rousseau, Nietzsche, Rilke, and Proust*. New Haven: Yale UP, 1979. p. 149. 재인용.

6) Derrida, Jacques.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Chakravorty Spivak.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76. p. 275.

고 있다”⁷⁾고 지적한다. 처음 만난 누군가를 ‘거인’이라는 말로 부르는 원시인은 어떤 고유의 의미, 즉 공포라는 내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은유를 만들어낸 것이다. ‘거인이 있다’는 말은 ‘무섭다’는 감정, 다시 말해서 본래의 의미를 전이시킨 비유이다. 루소는 비유적 의미의 자의적 의미에 대한 우선성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테리다가 논리적 모순을 중점적으로 지적하는데 비해, 드 만은 루소의 언어 기원론을 수사 형식 중 하나인 ‘은유’의 작동 방식에 의거해서 비판한다. 우선, 원시인이 다른 사람과 처음 마주쳤을 때 느끼는 공포는 객관적 정보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체의 외적 특성과 내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생긴다. 다시 말해서, 이 때의 공포는 “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설, 요컨대 경험적 혹은 분석적으로는 증명 불가능한 어떤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⁸⁾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인’이란 객관적 자료의 왜곡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 것을 확실한 것으로 제시하는 표현이 된다. 수사 장치로서의 은유가 일반적으로 ‘유사성에 기초한 전의’로 정의된다고 할 때, 루소의 에피소드는 아무 근거도 없는 두 요소를 단지 주관적 인상에만 기초해서 등치시키는 “맹목적”⁹⁾ 비유 행위를 보여준다.

드 만은 바로 은유 행위(혹은 언어 행위)가 가지는 유사성을 상정하는 힘에 주목한다. 유사성은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라는 비유적인 행위에 의해 ‘언어적 사실’로서 상정된 것일 뿐이며, 따라서 그 등치에 언어 외적인 근거는 없다. 하지만, 은유는 낭만주의 이후 수사학에서 특권화되었고, 거기에는 무근거적 등치

7) *Ibid.*, p. 277.

8) de Man, Paul, *op. cit.*, p. 150.

9) *Ibid.*, p. 151.

를 필연화할 어떤 필요가 존재하고 있다. 낭만주의는 이 언어적 상징에 ‘창조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문학을 근대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도록 만든 것이다. 드 만은 나아가 은유에 대한 이 탈구축을 읽기의 장면으로 전위시킨다. 읽기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말해진 것과 이해되는 것 사이의 상동관계를 설정하는 은유적 통합이며, 이것은 독자와 텍스트, 그리고 저자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합은 동시에 이들 문학 주체들 간의 차이의 소거이며, 텍스트라는 타자의 타자성의 말살이기도 하다.

2) 은유의 특권화와 미학 이데올로기에의 저항

드 만은 문학 작품에서 은유가 특권화된 예를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In Search of Lost Time*)를 읽으면서 찾아낸다. 드 만은 어느 여름날 방 안의 정경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프루스트가 은유적으로 제시하는 이미지가 사실은 환유적 과정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책을 읽기에 방은 어두웠고, 나의 감각을 일깨우며 빛을 찬란하게 전해준 것은 ... 악단을 만들어 여름날의 콘서트를 열고 있는 파리들이었다. 그 소리는 어찌면 여름에 들었다가 나중에 그 계절을 떠올리게 해주는 인간의 음악같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필연적으로 여름과 연결되어 있었다.¹⁰⁾

이 장면에서 파리 날개 소리와 여름은 ‘필연적으로’ 결부되고, 따라서 양자는 유사성을 가진 은유적 관계로 제시된다. 하지만, 정작

10) Proust, Marcel. *Swann's Way*. Trans. C. K. Scott Moncrieff and Terence Kilmartin. 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92. p. 114.

이 은유성은 환유적 과정을 통해 구축되고 있다. 파리 날개 소리와 여름은 원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같은 장소에(눈 앞에) 함께 있게 된 ‘인접성’에 의해 비유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양자가 은유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유사성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접성을 우연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여기서 가정되는 이항대립을 우위성 판단을 위한 미학적 기준으로 삼으려는 의도 때문이다. 은유를 우위에 두는 미학적 태도는 다른 것에서 동일한 것을 찾아내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통합하려는 의도의 발로이다.

프루스트의 이와 같은 태도는 다음 부분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밝은 거리에 둘러싸인 내 방의 그런 희미한 서늘함은 빛과 그림자의 관계에 있었다. 방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며 나의 상상력에 여름의 총체적 광경을 제공했고, 내가 산책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단편적으로만 맞볼 수 있었을 것이다.¹¹⁾

파리 날개 소리와 여름의 광경을 필연적인 고리로 묶으려는 시도는 단편화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총체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계속 이어진다. 이것은 환유적 차이를 은유적 동일성으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드 만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으면서 지적하는 내용의 요지는 크리스토퍼 노리스(Christopher Norris)의 표현을 빌리자면, “프루스트 작품의 저변에는 실제로 환유적인 것이 작동하고 있지만, 그 동력은 그 반대의 것을 주장하려는 경향에서 나온다”¹²⁾는 점이다.

환유를 은유로 환원하려는 경향을 찾아내는 읽기의 대상은 비단 프루스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드 만은 이 문제를 넓게는 낭만주

11) *Ibid.*, p. 114.

12) Norris, Christopher. *Deconstruction: Theory & Practice*. London: Methuen, 1982. p. 103.

의 이후 문학의 미학적 태도 전체로 확대시켜 논의하며, 이 과정에서 부각되는 것이 ‘미학 이데올로기’(aesthetic ideology)이다. 낭만주의는 고전 수사학에서 표준적·규범적 언어 사용으로부터의 이탈로 간주되던 은유에 개인의 ‘창조성’이라는 전도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시적 언어의 본질로 간주하기에 이른 것이다. 은유는 명시적으로 언표되는 관념(vehicle, 의미)과 그것에 의해 암시적으로 전달되는 관념(tenor, 취지)이 일치하는 대표적인 예로 간주된다. 바꾸어 말하면, 비유적 표현 자체가 내용을 창조하는 것에 미학적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학적 태도에는 자신의 언어에 권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작용하고 있고, 그것은 개인을 중시하는 근대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은유를 특권화 하는 미학이 성립한 이면에는 앞에서 살펴본 루소 의 언어 기원론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인식론적 도착이 내재해 있다. 두 사항 사이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동일성을 상정하고 개개의 사물에 갖추어져 있는 차이성을 동일성 속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태도가 은유의 특권화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드 만은 이와 같은 은유적 체계의 압제 혹은 폭력적 태도를 “흔들림 없는 은유 체계의 권위”¹³⁾에서 찾는다. 어떤 말이나 개념이 동일화와 총체화의 사고에 노출될 때 차이화의 계기가 상실될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에서 은유는 폭력적이다. 비유 형상을 구성하는 언어의 유희작용을 은폐하는 것은 언어가 가진 비유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드 만의 비평의 핵심에는 기호와 의미의 일치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문학 언어에 대한 비판이 자리잡고 있다. 미학 이데올로기에의 저항은 언어를 비유성에 개방시키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드 만의 비평에서 또 하나의 핵심어인 ‘알레고리’에 대한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3) de Man, Paul. *op cit.*, p. 239.

3. 알레고리와 저자의 의도

1) 알레고리와 독해불가능성

일반적으로 알레고리는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는 ‘우의’ 또는 ‘우화’로 번역되는 문학 양식이라는 장르적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드 많은 이 용어를 사용해서 언어의 차원을 이야기 혹은 텍스트의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알레고리는 기본적으로 언어의 비유성과 관련된 용어이며, 언어의 전반적인 존재 방식과 거기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별칭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이야기의 층위에서 볼 때 이 용어는 표면적으로 제시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의 해석을 유도하는 문학 양식이라는 점에서 비유성의 확장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말도,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이야기도 알레고리의 작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언어의 비유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은유의 특권화가 문제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독해불가능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는 알레고리에 대해 상징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미학적 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상징’이 저자의 의도와 전달 형식의 일치를 의미한다면, 알레고리는 이야기 혹은 텍스트 차원에서 그와 같은 내용과 형식의 일치가 불가능한 사태를 가리킨다. 자신과는 다른 것을 지시하는 언어에는 그 본성상 일탈(내적 차이화)이 내재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텍스트의 알레고리는 “읽기의 불가능성의 알레고리”¹⁴⁾이다. 이 용어 자체도 언어인 이상 항상 자신과는 다른 것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해석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14) *Ibid.*, p. 205.

모든 읽기가 ‘오독’(misreading)으로 파악되는 것도 언어와 텍스트가 처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귀결되는 것이다. 오독은 내적인 차이화의 움직임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텍스트를 읽을 때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텍스트를 지배적 의미나 해석의 원리에서 해방된 것으로 읽을 가능성의 조건이기도 하다. 조나단 컬러(Jonathan Culler)가 말하듯이 그것은 정합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부여해주지는 않지만, “형이상학적 이상화에 저항하고 우리의 해석 상황의 순간에 일시적 역동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다”¹⁵⁾. 오독은 독자 측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언어나 텍스트 내부에서 불가피하게 유래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주체의 의식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학 언어의 수사적 성질에 비추어보면 인식적인 기능은 주체의 내부가 아니라 언어의 내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다.”¹⁶⁾

문학 언어의 인식적 기능을 언어의 내부에서 찾는 위의 발언은 드 만이 다음에 설명하는 탈구축 비평의 성격에 이어진다.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읽기는 아니다. 그것은 텍스트 자체가 제공하는 언어(학)적인 요소들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저자와 독자의 준별은 읽기에 의해 명확해진 잘못된 구별의 하나이다. 탈구축이란 우리가 텍스트에 부가한 무언가가 아니다. 애초에 탈구축 그 자체가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는 자신의 수사적 양태의 권위를 주장함과 동시에 부정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는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처음에 글을 쓸 때 저자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같은 정도의 엄격함에 독자로서 접근하고자 노력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¹⁷⁾

15) Culler, Jonathan. *On Deconstruction: Theory and Criticism after Structuralism*, 25th Anniversary ed. Ithaca: Cornell UP, 2007. p. 178.

16) de Man, Paul. *Blindness and Insight: Essays in the Rhetoric of Contemporary Criticism*, 2nd ed.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3. p. 137.

17) de Man, Paul. *Allegories of Reading: Figural Language in Rousseau*,

텍스트의 알레고리적 상황은 외부적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에 그 자체로 갖추어져 있으며, 탈구축적 읽기란 이와 같이 자연적으로 내재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언어나 텍스트 속에 정반대되는 두 의미 내지 해석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그 결정불가능성에는 저자의 의도나 독자의 의식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할 여지가 없다. 두 의미나 해석의 가능성은 상호 배타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의존적이기도 하다.

2) 언어행위론과 주체

드 만의 이론에서 저자나 독자가 텍스트 해석의 권위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비유성과 알레고리에서 도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도’(intention)의 문제 또한 언어의 본성을 고찰하는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 문법 형식에 담긴 의도와 그것의 전달(communication) 가능성은 데리다와 존 설(John Searle)의 논쟁이 보여주듯이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킨다. 두 사람의 논쟁이 ‘언어행위론’(speech act theory)의 기본적인 전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탈구축비평의 관점에서는 표현과 내용, 그리고 해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드 만은 이런 사항들 중에서도 특히 저자 혹은 발화자의 의도와 관련하여 언어행위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철학과 논리에서는 모든 언술을 참과 거짓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존. L. 오스틴(John. L. Austin)은 이 ‘사실확인적’(constative) 발화와는 다른 종류의 문장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장의 역할은 사물의 상태나 사실의 묘사 혹은 기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화 자체가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행

위수행적(performative) 측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이론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발화 내 행위’ (illocutionary act)에 속하는 약속문의 경우, 그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 주체의 ‘의도’를 전달하는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이 때 요구되는 것은 발화하는 순간 그 발화자의 의도가 거짓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 진실된 의미나 의도가 그것을 전달하는데 알맞은 문법 형식과 일치할 때, 그것은 ‘적절한’(felicitous) 발화가 된다.

드 만이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 ‘의도’라는 개념이다. 언어는 고유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발화 주체의 의도를 전달하는 수행적 형식이라는 주장은 분명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엄밀한 비판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러나, 의도와 문법 형식의 일치라는 전제는 바꾸어 말하면 언어 기호와 지시 대상의 일치가 변주된데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드 만은 “발화 내 행위라고 불리는 명령, 질문, 부정, 기원 등을 수행하는 것은 그것에 대응하는 명령문, 의문문, 부정문, 기원문 등의 통사적 문법 구조에 상응한다”¹⁸⁾고 지적한다. 의미와 형식을 일치시키는 이와 같은 발상은 양자 사이에 분출할 수 있는 논리적 긴장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일치는 “텍스트 내에 의도적인 의식 내지는 주체라는 은유를 투사”¹⁹⁾할 때, 다시 말해서 ‘저자의 의도’를 상정할 때 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해 텍스트 내의 요소들이 가지는 수사적 힘을 억압하고 배제할 위험성을 지니게 된다.

18) *Ibid.*, pp. 8-9.

19) de Man, Paul. *op cit.*, p. 287.

3) 신비평과 저자의 의도

문학 연구에서 저자의 의도라는 문제는 탈구축비평 이전의 신비평(New criticism)에서도 ‘의도론적 오류’(the intentional fallacy)라는 개념을 통해 부각되었다. W. K. 뎀제트(W. K. Wimsatt)와 먼로 C. 비어즐리(Monroe C. Beardsley)는 “저자의 고안이나 의도는 문학 작품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²⁰⁾고 주장한다. 대신에, 작품의 의미는 정독(close reading)을 통해 발견되는 아이러니(irony), 역설(paradox), 애매성(ambiguity) 등에 있다. 신비평에 있어서 시는 혼란스러운 현실적 경험으로 인한 삶의 복잡성과 모순에서 일관된 전체성을 끌어내는 문학 형식이다. 클린스 브룩스(Cleanth Brooks)가 주장하듯이 시인은 역설이나 아이러니 등을 통해 “서로 조화되지 않고 모순되는 것들을 접합함으로써”²¹⁾ 이 전체성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신비평가들에게 있어서 시의 형식은 언어 자체보다는 저자의 의도에 접근하는 매개로서 주목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 형식과 의미의 결합이라는 주제는 언어행위론과 마찬가지로 신비평에서도 변주되고 있다.

신비평은 언어의 수사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시의 전체적 통일성으로 회귀하고 있다. 탈구축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모순에 대한 비판을 선취하는 것은 케네스 버크(Kenneth Burke)의 ‘편차’(deflection) 개념이다. 버크에 의하면 사람들은 현실을 충실히 반영해 주리라고 기대되는 어휘를 찾아서 선택하지만, 어떤 것을 선

20) Wimsatt, W. K. Jr. and Monroe Beardsley, “The Intentional Fallacy,” *Contemporary Literary Criticism: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Eds. Robert Con Davis and Ronald Schleifer, 2nd ed. New York: Longman, 1989. p. 44.

21) Brooks, Cleanth. “The Language of Paradox,” *Contemporary Literary Criticism: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Eds. Robert Con Davis and Ronald Schleifer, 2nd ed. New York: Longman, 1989. p. 40.

택하든 그것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현실의 편차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²²⁾ 이 어긋남을 초래하는 것은 주체의 의도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다. 드 만은 편차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언어의 수사성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버크는 편차를 “미세한 혹은 의도적이지 않은 오류”로, 언어의 수사적 토대로 언급하며, 편차는 문법 패턴 내에서 작동하는 기호와 의미의 정합적인 결합의 변증법적 전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문법과 수사의 구별이라는 버크의 유명한 주장을 표현한 말인 것이다.²³⁾

편차는 기호와 의미, 문법과 수사 사이에 개입하는, 언어가 언어인 이상 불가피한 조건이며, 데리다의 ‘차연’이나 존슨의 ‘비평적 차이’도 이 ‘의도적이지 않은’ 어긋남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것은 언어 내부의 곳곳에 잠재해 있고, 텍스트는 외부의 힘이나 원리에 의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내부에서 균열되어 있는 것이다.

드 만은 편차 개념을 거론한 후 곧바로 찰스 S. 퍼스(Charles S. Peirce)의 기호론에 대해 언급한다. 널리 알려진 퍼스의 삼원론적 기호론에서 주로 관심을 끄는 것은 ‘해석소’(interpretant)이다. 드 만 또한 이런 관점에서 기호의 해석과 읽기를 관련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퍼스에게 있어서 기호의 해석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기호이다. 그것은 해독이 아니라 ‘읽기’이며, 이 읽기는 다시 다른 기호로 해석되어 가는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다. 퍼스는 이 과정을 “한 기호가 다른 기호를 낳는” 순수 수사라고 부르며 순수 문법과 구별한다. 순수 문법이

22) Burke, Kenneth. “Vocabularies of Motive.” *On Symbols and Society*. Ed. Joseph R. Gusfield. Chicago: The U of Chicago P, 1989. p. 158.

23) de Man, Paul. *Allegories of Reading: Figural Language in Rousseau, Nietzsche, Rilke, and Proust*. New Haven: Yale UP, 1979. p. 8.

란 어떤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없는 이원적 의미와 순수 논리를 상정한다. 그것은 의미의 보편적 진리성을 상정하는 것이다.²⁴⁾

퍼스가 재현(representation)이라고 부르는 의미 해석의 과정은 기호와 대상 사이에 해석소의 개입으로 인해 명료한 기원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데리다 식으로 말하면, 해석소는 기호를 고정되고 안정된 ‘초월적 기의’(transcendental signified)에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ad infinitum) 과정에 개방시킨다.

편차와 해석소에 대한 언급은 자의적 의미/비유적 의미의 구별이 어떤 언어적 특성에 기초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기호와 의미는 괴리되어 있고, 기호는 언제나 다른 기호를 가리킨다는 사고는 드 만이 문학 언어의 기본적 성격을 비유성이라고 규정하는 관점 속에 거의 그대로 용해되어 있다. 언어의 수사적 사용을 의미하는 비유성은²⁵⁾ 문법/수사를 준별하고 텍스트의 수사적 읽기를 전경화시키는 그의 비평의 토대에 있는 것이다. 가세가 드 만 비평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알레고리 또한 이와 같은 논의의 맥락 속에 있다. 텍스트를 수사적으로 읽는 것이란 저자의 의도 혹은 중심적 의미,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는 해석적 입장에 권위를 부여하는 일의 계속되는 실패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4. 수사적 읽기와 텍스트의 타자성

1) 문법과 수사

드 만이 취하는 텍스트에 대한 접근법이 문법/수사를 준별하는

24) *Ibid.*, p. 9.

25) McQuillan, Martin. *op. cit.*, p. 18.

데서 성립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항대립의 전복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적 읽기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양자의 위계질서를 지탱하는 의미 체계의 탈구축인 것이다. 탈구축 비평의 목표는 기호와 의미의 일치를 선형적으로 상정하는 미학 이데올로기への 저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말, 어구, 텍스트가 서로 배치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산출하고, 그 중 어느 하나를 지배적 혹은 특권적 의미로 확정할 수 있게 해주는 외부적 권위가 부재함을 드러내는 읽기이다. 이런 비평적 태도는 제임스 록슬리(James Loxley)의 표현을 빌리자면 “양립불가능한 개념의 불가피한 상호의존을 드러내는 결정불가능한 혼교법칙을 해명하고자 하는 의무의 표명”²⁶⁾이다. 탈구축은 정확히 그와 같은 아포리아(aporia) 혹은 이중구속(double bind)적 상황을 언어나 텍스트에 깃들여 있는 창조적 계기로 전경화하고, 차이나 모순을 폭력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총체화’(totalization)의 정신을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재고하는 것이다. 언어의 비유성에서 시작되는 드 만의 비평은 독해불가능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미 혹은 의도에 대한 논의를 불가피하게 수반하며, 이 전체는 ‘수사적 읽기’로 수렴될 수 있다.

드 만이 수사적 읽기의 대표적인 예로 다루는 것이 ‘수사의문문’(rhetorical question)이다. 이 언설 형식은 문법과 수사, 즉 자의적인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의 긴장과 공존을 보여주며, 또 그 속에서 통사적 장치를 통해 비유적 의미가 직접 전달된다. 그가 분석하는 수사의문문의 예로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텔레비전 시트콤 『가정의 모든 것』(*All in the Family*)에 등장하는 아치 병커(Archie Bunker)와 그의 아내 이디스(Edith)가 나누는 대화이다. 볼링화 끈을 매어 달라는 아치의 부탁에 이디스가 위

26) Loxley, James. *Performativity*. New York: Routledge, 2007. p. 98.

쪽으로 묶을지 아래쪽으로 묶을지를 묻자 그는 ‘뭐가 다르지?’ (what’s the difference?)라고 반문한다. 그러자 너무나 단순한 이 디스는 그 차이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아치의 물음은 말할 것도 없이 ‘아무래도 상관 없잖아?’라는 비유적 의미를 가지지만, 이디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자의적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부부의 대화는 동일한 문법구조가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의 ‘두 가지’의 관계를 이른바 다의성(polysemy)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치의 문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의미를 낳고 “문법적 혹은 다른 언어학적 장치에 의해 ... 어느 쪽이 우세한지 결정할 수 없는”²⁷⁾ 애매성 혹은 결정불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결정불가능한 상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텍스트 외적인 의도”²⁸⁾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텍스트 내부에서는 지배적 의미를 특정할 기준은 발견되지 않으며, 그 외부의 어딘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위에 의존함으로써 아포리아적 상황을 해소하는 것은 동시에 무책임한 의미의 환원이기도 하다. 언어의 수사성이 초래하는 곤란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읽기의 주체에게 요구되는 일이라는 점을 드 만은 이 예를 통해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드 만이 분석하는 또 하나의 수사의문문의 예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의 시 「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Among School Children”)이다.

오, 너도밤나무여, 위대하게 뿌리내린 꽃피우는 자여,
그대는 잎인가, 꽃인가, 줄기인가?

27) de Man, Paul. *op. cit.*, p. 10.

28) *Ibid.*, p. 10.

오, 몸은 음악에 흔들리며, 오, 밝게 비추는 눈길이어,
 춤과 춤추는 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O chestnut-tree, great-rooted blossomer,
 Are you the leaf, the blossom or the bole?
 O body swayed to music, O brightening glance,
 How can we know the dancer from the dance?²⁹⁾

드 만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의 마지막 행인 ‘춤과 춤추는 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수사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형식과 경험, 창조주와 창조의 잠재적인 일체성을 말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³⁰⁾. 대표적으로 프랭크 커모드(Frank Kermode)는 여기서 춤과 춤추는 이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둘은 “육체와 영혼, 의미와 형식이 불가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불가분한 것이다”³¹⁾라고 말하고 있다. 예이츠의 이 시에서 마지막 문장은 의심할 여지없이 반어적인 수사이문문, 즉 춤과 춤추는 이를 구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이 비유성이 작품 전체를 읽는데 일관성을 제공하는 원리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춤과 춤추는 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는 간절한 요구로 읽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양자는 본질적으로 결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읽기는 종래의 전통적 방식을 역전시키고 시 전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29) Yeats, W. B. *The Collected Poems of W. B. Yeats*. London: Macmillan, 1961. p. 245.

30) de Man, Paul. *op. cit.*, p. 11.

31) Kermode, Frank. *Romantic Ima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7. p. 85.

각 부분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 시의 마지막 행에 대해 보다 복잡하고 정치한 해석이나 분석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의적인 읽기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이 예에서도 드 만의 목표는 자의적/비유적 의미의 우열관계 확립에 있지 않다. 오히려 여기서는 의미의 결정불가능성과 아울러, ‘같은 것’과 ‘다른 것’ 사이에 상정되는 위계적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이 표명되고 있다. 특히 시적인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는 비유적인 읽기를 자의적인 읽기에 우선시켜 후자를 단순한 읽기 행위로 치부하는 경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³²⁾, 이것은 분명히 문제를 드러낸다. 이 경향은 독자에게 일관된 읽기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해석의 일원화와 일의화를 유도하고 ‘다른 것’의 작동 가능성을 봉쇄해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동일시킬 수 없는 것을 동일시하는 잘못”³³⁾을 범하는 일이며, 예이츠의 시에서 직접적으로 대결하지 않을 수 없는 두 의미 중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지 결정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2) 텍스트의 타자성과 윤리의 알레고리

정합적 읽기를 거부하는 탈구축적 독해 실천은 텍스트를 의미작용들이 서로 경쟁하는 장으로 보고, 그것을 단일한 의미의 절대적인 지배에서 해방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앞에서 언급한 ‘비평적 차이’의 분석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수사적 읽기는 일의적인 의미에 동화되지 않고 전체적인 이해를 거부하는 ‘다른’ 의미작용, 즉 ‘타자’에 주의를 기울이는 읽기이다. ‘하나의 의미작용이 다른 의미작용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진다는 주장’에는 타자의

32) de Man, Paul. *op. cit.*, p. 9.

33) *Ibid.*, p. 11.

억압과 배제가 수반되며, 타자의 타자성은 그 지배를 붕괴시킴으로써 대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탈구축이란 의미의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호와 의미의 불일치는 근본적으로 언어와 주체의 관계를 논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규정한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언어적 사태를 ‘말하는 주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다. 탈구축비평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드 만은 한 인터뷰에서 이데올로기 문제와 더 넓게는 정치적 문제에는 언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순수한 언어적 분석에서 정치·이데올로기적 분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루소를 읽으면서 갖게 되었다”³⁴⁾고 밝히고 있다.

언어와 정치·이데올로기를 연결시키는 매개는 주체의 의도이며, 이것이 통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드 만의 이 발언은 ‘윤리성’의 본질에 관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윤리는 개인들의 선의나 양심에서 출발하여 상호 합의에 이르는 실체적인 개념이나 원리가 아니다. 그것은 비유성이라는 본성을 가진 언어의 알레고리적 사용인 언설의 내부에 존재한다. 윤리는 “언어적 아포리아의 하나이며 ... 수많은 언설 형식의 하나”,³⁵⁾ 즉 구축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허구에는 주체에 의한 의도의 통어나 주체간의 합의가 아니라 “은유적-환유적 구조에 의해 지탱되는 비유”³⁶⁾가 존재할 뿐이다. 이 구조를 벗어나 외부의 실체에 윤리적인 문제를 기초지우는 것이야말로 윤리성을 은폐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윤리적 선언이란 언어가 그러하듯이 복

34) Rosso, Stephano and Paul de Man. “An Interview with Paul de Man.” *Critical Inquiry* 12.4 (1986): p. 794.

35) de Man, Paul. *op. cit.*, 206.

36) McQuillan, Martin. *op cit.*, p. 125.

잡한 수사적 힘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윤리적인 수 없는 “윤리의 알레고리”³⁷⁾를 벗어날 수 없다.

주체에 의한 언어의 지배, 즉 기호와 의미의 일치의 보증은 필연적으로 권력관계 내에서 행해지게 되고, 따라서 반드시 폭력이 수반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말하듯이 “탈구축한다는 것은 부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라는 말을 의문에 부치고 ...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용법이나 새로운 전개를 향해 그것을 개방시키는 것”³⁸⁾이다. 탈구축은 지배적 개념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배제된 것들과의 관계를 재고하는 것이다. 드 만에게 있어서 문학과 윤리의 관계는 기호와 의미를 일치시켜 언어를 지배하고 텍스트를 이해가능한 것으로 치환할 때 거기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서 성립한다.

언어적 유희 혹은 언설적 작용으로서의 문학 텍스트,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윤리성은 문학의 주체 중 독자에게도 새로운 성격의 ‘책임’(responsibility)을 요구한다. 독자가 해석에서의 권위나 토대에 의존할 수 없게 될 때, 읽는 행위에 있어서 진정한 책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경험 가능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토마스 키넨(Thomas Keenan)이 말하듯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분명히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행동의 결과나 조건을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을 때 ... 우리는 비로소 책임/응답가능성이라는 무언가와 조우하게 되는 것이다.”³⁹⁾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 조건이나 결과를 기존의 규칙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계산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면 그것은 기

37) *Ibid.*, p. 125.

38) Butler, Judith. “Contingent Foundations: Feminism and the Question of ‘Postmodernism.’” Eds. Judith Butler and Joan Scott.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1992. p. 15.

39) Keenan, Thomas. *Fables of Responsibility: Aberrations and Predicament in Ethics and Politics*. Stanford: Stanford UP, 1992. p. 2.

계적인 적용에 불과할 뿐 스스로의 결단이라고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읽는 주체, 즉 독자가 책임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외부적 권위에 의존하여 텍스트를 인식하고 그 타자성을 자기의 동일성으로 환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응답이라고 할 수 없다. 읽기란 텍스트를 자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거부하는 어떤 것에 대한 응답가능성(responsibility)을 찾는 일이다.

5. 결론

언어의 비유성과 알레고리에 기초한 입장으로 인해 드 만의 비평은 텍스트 중심적인 내재적 비평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외재적 비평 진영으로부터의 비판은 주로 문학의 사회적, 정치적 비평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다. 텍스트 내에서 언어의 비지시성을 강조할 때 뒤따르게 되는 역사성과 정치성의 결여 내지 배제라는 문제는 특히 탈구축비평에 대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논점 중 하나이다. 프랭크 렌트리키아(Frank Lentricchia)의 지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는 신비평이 남긴 유산도 “반역사적 계책”⁴⁰⁾이라고 부르며 비판한다. 드 만에 이르러 더욱 공고해진 이와 같은 형식주의는 “사방이 언설이라는 벽으로 둘러싸인 세계”를 구성하고, 여기서는 “아포리아의 출현이 불가피하며 ... 결정불가능한 것들의 비의적 영역에서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든 언어적 힘이 무화되고 자신을 의심하는 자의식적인 힘만 남게 되었다”⁴¹⁾고 지적한다. 렌트리키아의 주장

40) Lentricchia, Frank. *After the New Criticism*, Chicago: The U of Chicago P, 1980. p. viii.

41) *Ibid.*, p. 317.

은 드 만적인 탈구축이 무력화시킨 문학의 사회 비평적 잠재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의 비유성이 은유의 이데올로기성을 폭로하는데서 성립한다는 점에서, 드 만의 비평을 텍스트 중심적 폐쇄성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문학 언어에서의 기호와 의미의 불일치, 텍스트에 내재된 차이, 그리고 지배적 의미라고 여겨지는 것에 의해 억압되고 배제된 의미를 발견해내는 읽기의 방식에 문학과 세계의 관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사적 읽기는 언어의 비유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여러 해석적 입장이 자신의 기준을 전체화하는 것을 비판하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한 해석의 권위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드 만적 탈구축이 가지는 정치성과 이데올로기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의적 의미/비유적 의미의 이항대립을 탈구축하고, 텍스트가 지배적 의미로 환원될 때 작동하는 권력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문학을 윤리적 차원에서 논의하는데 필요한 비평적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사적 읽기는 독서의 주체의 문제를 야기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수사적 읽기 자체도 전체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는 것에 대한 반성을 거치게 되고, 그 결과 이 읽기는 자신의 일관성마저도 거부하며, 탈구축을 무한히 지속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어떠한 지배적 의미 체계에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독자에게는 예견 불가능한 타자로서의 텍스트가 마주 놓이게 된다. 수사적 읽기를 단지 언어의 유희를 사고하는데 그치는 무책임한 이론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때, 오히려 그 이론적, 실천적 의의는 텍스트의 타자성과 떼어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런 점에서, 드 만의 비평은 문학의 윤리적 가능성과 관련된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논문

- Brooks, Cleanth, "The Language of Paradox," *Contemporary Literary Criticism: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Eds. Robert Con Davis and Ronald Schleifer, 2nd ed, New York: Longman, 1989, pp. 33-42.
- Burke, Kenneth, "Vocabularies of Motive," *On Symbols and Society*, Ed. Joseph R. Gusfield, Chicago: The U of Chicago P, 1989, pp. 158-76.
- Butler, Judith, "Contingent Foundations: Feminism and the Question of 'Postmodernism,'" Eds. Judith Butler and Joan Scott,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1992, pp. 3-21.
- Rosso, Stephano and Paul de Man, "An Interview with Paul de Man," *Critical Inquiry* 12,4 (1986): pp. 788-95.
- Wimsatt, W. K. Jr. and Monroe Beardsley, "The Intentional Fallacy," *Contemporary Literary Criticism: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Eds. Robert Con Davis and Ronald Schleifer, 2nd ed, New York: Longman, 1989, pp. 44-53.

2. 단행본

- Culler, Jonathan, *On Deconstruction: Theory and Criticism after Structuralism*, 25th Anniversary ed, Ithaca: Cornell UP, 2007.
- de Man, Paul, *Allegories of Reading: Figural Language in Rousseau, Nietzsche, Rilke, and Proust*, New Haven: Yale UP, 1979.
- _____. *Blindness and Insight: Essays in the Rhetoric of Contemporary Criticism*, 2nd ed,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3.
- _____. *The Resistance to Theory*,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6.
- Derrida, Jacques,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Chakravorty Spivak,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76.
- Gasché, Rodolphe, *The Wild Card of Reading: On Paul de Man*, Cambridge:

- Harvard UP, 1998.
- Johnson, Barbara, *The Critical Difference: Essays in the Contemporary Rhetoric of Reading*.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80.
- Keenan, Thomas, *Fables of Responsibility: Aberrations and Predicament in Ethics and Politics*. Stanford: Stanford UP, 1992.
- Kermode, Frank, *Romantic Ima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7.
- Lentricchia, Frank, *After the New Criticism*. Chicago: The U of Chicago P, 1980.
- Loxley, James, *Performativity*. New York: Routledge, 2007.
- McQuillan, Martin, *Paul de Man*. New York: Routledge, 2001.
- Norris, Christopher, *Deconstruction: Theory & Practice*. London: Methuen, 1982.
- Proust, Marcel, *Swann's Way*. Trans. C. K. Scott Moncrieff and Terence Kilmartin. New York: The Modern Library, 1992.
- Yeats, W. B., *The Collected Poems of W. B. Yeats*. London: Macmillan, 1961.

(투고일: 2024. 5. 14 심사완료일: 2024. 6. 19 게재확정일: 2024. 6. 21)

원철
소속: 부산대학교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자우편: cwono@hanmail.net

[Abstract]

**Paul de Man's Criticism:
Rhetorical Reading and the Alterity of Text**

Won, Chul

This study aims to explore deconstructive critic Paul de Man's theory with an emphasis on its rhetorical reading and the alterity of the text. The critical concepts such as the figurality of language, allegory, unreadability underpin his criticism. Reading literary texts with these concepts brings the privileged meaning into question. The way of reading in which the reader reveals the discrepancy of sign and meaning in literary language, differences in text, and the meaning oppressed by the predominant one connotes the responsibility to the other. Deconstructing the binary opposition of the literal/the figural and exposing the power relation acting in the course of the reduction to a predominant meaning are unavoidable critical practices to explore literature from an ethical perspective. De Man's criticism says that reading invites us to experience the responsibility to the other involved as a fundamental constituent in literary texts. In this regard, it is absurd to denigrate deconstructive criticism as an irresponsible theory laying emphasis only on free play of language. De Man incessantly deconstructed literary texts with figural meaning of language, and it seems reasonable to say that his criticism has a relevance to ethics of the other.

Key Words: the figurality of language, deconstruction, rhetorical reading, allegory, alterity, unreadability, the intention of the author, responsibility